

Wars and Rumours of Wars 24/5/15
(Daniel 11:2-45)

<p>What is history and why do we need it? Henry Ford said, "History is more or less bunk". For him, nothing in the past was of any conceivable use in the task of living in the present. He thought that history was simply irrelevant. Others, however, have argued not only that history is irrelevant but also that it is essentially meaningless. On this view, "stuff happens" with no particular pattern or significance. If that view is correct, then history has no lessons to teach us. I suspect that many people aren't fond of history because they find it dull and boring. Daniel 11 seems at first reading to be an example of such dull history. It presents a dizzying and confusing array of alliances and conflicts, of wars and rumours of wars, the kind that could easily seem just a whole lot of random coincidences. Is there really something that we can learn from this history that will actually be relevant and meaningful to living our lives in the here and now of the early 21st century? If so, what on earth is it?</p>	<p>역사란 무엇이며, 우리는 왜 역사가 필요할까요? Henry Ford는 "역사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는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과거의 그 어떤 것도 현재 삶의 과제에 적용 가능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역사란 그야말로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단지 역사가 무관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의미 없음에 대해 논쟁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이 일어나는 것"에는 특정한 양식이나 의의가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관점이 옳다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없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역사는 따분하고 지겹기 때문에,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처음 읽었을 때에, 다니엘 11 장은 이러한 따분한 역사의 예로 여겨집니다. 이는 동맹과 분쟁, 그리고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들에 대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배열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수많은 무작위로 발생된 우연의 일치로 여겨집니다. 21 세기 초의 현재와 지금의 우리 삶에 관련이 있고 의미가 있을 이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정말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 일까요?</p>
<p>Daniel's vision begins in vv. 2-3 with a brief summary of the Persian and Greek empires (vv. 2-3). After Cyrus, the present Persian ruler, three more kings would arise in Persia and then a fourth, who would be richer and more powerful than the others and would enter into conflict with Greece. The fourth king is generally recognised as Xerxes (486-465 B.C.) the husband of Esther. He was a great and mighty king, under whom Persian power reached its pinnacle, but he is also remembered for invading Greece. This began the conflict that would ultimately lead to the downfall of the Persian empire. Greece would become the world power under Alexander the Great ("a mighty king" who ruled "with great power" and did as he pleased). He died in 323 B.C. and his empire was then divided among his four generals, none of whom were related to him, exactly as anticipated in Daniel 11:4-5.</p>	<p>2-3 절의 다니엘의 이상은 바사와 헬라 왕국의 요약으로 시작합니다. 현재의 통치자인 고레스왕 이후, 또 세명의 왕이 바사에서 일어나고, 그 후의 네 번째, 다른 누구보다 힘있고 재력이 강하며, 헬라와의 분쟁에 속할 왕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 왕은 통상적으로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세로 (486-465 B.C.)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바사의 힘이 그 정점에 이르게 한 위대하고 강력한 왕이었습니다만, 또한 헬라 왕국을 침략한 것으로도 기억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바사 왕국을 쇠락을 이끌었던 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헬라 왕국은 알렉산더 대왕 ("위대한 힘"으로 다스렸던 "강력한 왕"이며 그의 뜻대로 행하였던)의 지휘 아래 강국으로 발전합니다. 그는 B.C. 323 년에 사망하였고, 이후 그의 제국은 다니엘 11:4-5 에서 예견되어진 바와 같이,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던 네 명의 그의 장군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p>
<p>Two of the four kingdoms that emerged out of Alexander's empire were the kingdom of the Ptolemies based in Egypt, and the kingdom of the Seleucids based in Syria and Babylonia. From an Israelite perspective, the conflicts of these two dynasties - the kings of the South (the Ptolemies) and the kings of the North (the Seleucids) - were the most significant events in world history during the third and second centuries B.C. These events are the heart of Daniel 11. Indeed the precision of the predictions in this chapter is truly astonishing (we will look in more detail in our Friday morning</p>	<p>알렉산더 제국에서 파생되었던 네 왕국중의 두 왕국은 이집트에 근거한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었고, 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 기반을 둔 셀레우코스 왕국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남방 왕(프톨레마이오스 왕조)과 북방 왕(셀레우코스 왕조), 이 두 왕조의 분쟁은 기원전 2,3 세기 동안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다니엘 11 장의 핵심입니다. 더군다나 이 장에서 예측의 정확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금요일 오전 성경공부에서 더 자세한 사항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주석자들에 따르면, 다니엘 11 장은</p>

Wars and Rumours of Wars 24/5/15
(Daniel 11:2-45)

<p>study group). According to a number of commentators, Daniel 11 refers in a specific, historically identifiable way to 13 of the 16 rulers of these two kingdoms between 322 and 163 B.C. I want to look, not at a detailed study of these verses, but rather at the flow of the events that are recorded for us and to ask what the significance of this history was for Daniel and what it is for us.</p>	<p>구체적이고 역사적으로 확인가능한 방법으로 B.C. 322 년과 163 년 사이의 이 두 왕국의 16 명의 통치자 중 13 명의 통치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절들의 구체적인 연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록된 이러한 사건들의 흐름을 살펴보고, 다니엘에게 이 역사의 중요성이 무엇이었으며, 우리에게는 어떠한지를 묻고자 합니다.</p>
<p><u>1. The First Phase - Wars and Rumours of Wars</u> The first phase of the history runs from verse 5 to verse 20, covering the conflict of the kingdoms of the North and the South from their establishment in 322 B.C. down to the assassination of Seleucus IV in 175 B.C. The elements that are highlighted in this part of the history are a seemingly endless sequence of great conflicts, wars and politics, which never reach a conclusion. This summary gives us a profound perspective on history. On one level, it is the continual story of wars and rumours of wars, as one human ruler and empire after another seeks to gain power either by cunning or force. Yet, in the end, it accomplishes precisely nothing. The balance of power in earthly politics may shift but it never comes to a permanent rest. What do power and politics gain for all their effort? Nothing. As the writer of Ecclesiastes noted, all this is meaningless. And this was not a history in which God's people were merely spectators. As we see from verse 14, some of the Jews were caught up in the conflict directly but without success. Others were indirectly affected as the forces of one side or the other swept through Judah, "the Beautiful Land", leaving a trail of destruction in their wake.</p>	<p><u>1. 첫 번째 단계 -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들</u> 5 절부터 20 절에 나오는 역사의 첫 번째 단계는 B.C. 322 년 그들의 건립으로부터 B.C. 175 년 셀레우코스 4 세의 암살까지, 북방과 남방 왕국들의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역사에서 강조된 요소는 절대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엄청난 분쟁과 전쟁, 그리고 정치의 끊임없이 연속적인 사건들입니다. 이 요약은 우리에게 역사에 대한 심오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마치 교활함이나 힘으로 권력을 얻고자 하는 자 이후의 또 다른 통치자와 왕국처럼,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들의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엔, 이는 엄밀히 말해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합니다. 세속적인 정치 체제의 힘의 균형은 아마도 이동될 지 모르나, 결코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권력과 정치는 그러한 노력에 대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기록한 바와 같이, 이 모든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낱 구경꾼들이 이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14 절에서 보듯이, 일부 유대인들은 분쟁에 직접적으로 휘말렸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한쪽 또는 다른 한쪽의 힘이 "아름다운 땅" 유다를 휩쓸고 지나감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여파로 파멸의 흔적을 남겼습니다.</p>
<p>Why did Daniel need to hear about this history in his situation? He needed to hear so as to put the difficulties that the Jews were facing in 536 B.C., as they returned to Judah to resettle and rebuild, in perspective. There was nothing unique about the trials and tribulations that faced them. The court politics that delayed the building work on the temple in Jerusalem and the opposition from powerful enemies that they encountered were not some temporary hiccup but would be an ongoing feature of life in this world. God was in control even of these events. Nor should they seek to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Patient endurance was what was required of them until God intervened to set up his kingdom.</p>	<p>왜 다니엘은 그가 처한 상황속에서 이 역사에 대해 들어야만 했을까요? 그는 유대인들이 B.C. 536 년, 유다로 다시 돌아가 재정착하고, 재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이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직면한 시련과 고난에 대한 그 어떤 특별함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지연했던 궁정 정치와 그들이 맞닥뜨렸던 강적의 반대파는 그저 일시적인 지연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세상 삶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러한 사건들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일을 처리하려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개입하실 때까지, 인내만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p>
<p>There is an important lesson for us also to learn from this history. At the end of the story, and for all their arrogant power, the kingdoms of this world can neither destroy God's work nor establish it. They are merely tools in God's hand - because he is sovereign, able to declare the end from the beginning because he alone ultimately controls the affairs of individuals and nations. This truth has great practical value for us, doesn't it? We</p>	<p>또한 이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모든 오만한 권력에 대하여, 이 세상의 왕국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거나 또는 그것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수단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작과 끝을 선포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며, 오로지 그분만이 개개인과 나라들의 일들을 조정하실 수 있는</p>

Wars and Rumours of Wars 24/5/15
(Daniel 11:2-45)

<p>all experience times when we get caught up in events that are completely out of our control. Perhaps our job is threatened because of a decision to close the branch where we work, a decision made by company executives interstate or even overseas. Perhaps political decisions or terrorist acts beyond our power to influence threaten our freedoms or lifestyle. Our health, or the health of a loved one, may be threatened by a disease which we have no ability to guard against. We live in a great big world and we are so very small.</p>	<p>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는 대단히 실제적인 가치를 갖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일들에 처한 경우가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지점이 문을 닫기로 한 결정으로 인해, 또는 회사의 주간 또는 해외 실무진에 의한 결정으로 인해, 우리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힘이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정치적인 결정이나 테러 활동들이 우리의 자유와 생활 방식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강, 또는 사랑하는 이의 건강이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질병에 의해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거대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도 작습니다.</p>
<p>In such times of personal uncertainty, we need to cling firmly onto the knowledge that all that happens in this world, from the great things to the very least, are not only known ahead of time by our God but are under his sovereign power to control. Even those actions initiated by godless and evil men and women in pursuit of their own wicked purposes will ultimately achieve the Lord's good and holy purposes. That was the early church's perspective on the crucifixion: "Indeed Herod and Pontius Pilate met together with the Gentiles and the people of Israel in this city to conspire against your holy servant Jesus, whom you anointed. They did what your power and will had decided beforehand should happen" (Acts 4:27-28). God alone can foretell what the future holds because he holds it in his sovereign hand.</p>	<p>개인적인 불확실한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매우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이 모두를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이미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의 통제력 아래 있다는 사실을 견고히 붙잡음이 필요합니다. 설령 자신들의 사악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시작된 믿음 없는, 악랄한 이들의 행동들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선하고 거룩한 목적을 이룰 것 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상의 죽음에 대한 초기 교회의 관점이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행 4:27-28).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자적 손에 이를 쥐고 계시기에, 하나님만이 홀로 미래에 행해질 것을 예언하실 수 있으십니다.</p>
<p>2. <u>The Second Phase - Antiochus IV</u> Verses 21-35 focus our attention on the reign of a single Seleucid king, Antiochus IV, also known as Antiochus Epiphanes. Although he was not next in line for the throne after the death of his brother, Seleucus IV, Antiochus gained it through intrigue - scheming and plotting. Antiochus started with limited support but gradually grew in power, making strategic alliances but keeping them only as long as it suited him (v. 23). Those who tried to resist him were swept away - including the Jewish high priest Onias III (who may be the "prince of the covenant" in v. 22).</p> <p>Subsequently Antiochus defeated Ptolemy IV, the King of the South, returning to his own country with great wealth. A few years later in 168 B.C. Antiochus invaded Egypt again, this time with disastrous results. The rising Mediterranean power of the day, the Romans ("the ships of the western coastlands") became involved in the dispute and Antiochus was forced to withdraw humiliated. Meanwhile, during Antiochus' campaign in Egypt, rumours had circulated in Judah of his assassination, which led to an attempted uprising by the Jews. On his return, Antiochus stormed Jerusalem and slaughtered many Jews, building a fortress for his troops there. He banned Jewish practices such as circumcision and eliminated the regular daily offerings at the temple, offering pig's flesh on the sacred altar instead. He</p>	<p><u>2. 두 번째 시기 - 안티오쿠스 4 세</u> 21-35 절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도 알려진 셀레우코스의 왕, 안티오쿠스 4 세의 통치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그의 형제였던 셀레우코스 4 세의 죽음 이후 보위 계승자는 아니었으나, 안티오쿠스는 권모술수와 음모를 꾸며 이를 얻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제한적인 지지로 시작하였으나, 전략적인 동맹을 맺고, 가능한 오로지 그에게 유리한 동맹만을 유지함으로써 점차 권력을 키웠습니다(23 절). 유대인의 대제사장인 오니아스 3 세 (어쩌면 22 절의 "동맹한 왕"일지 모르는)를 포함하여 그에게 저항하는 사람들 모두가 제거되었습니다.</p> <p>안티오쿠스가 남방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4 세를 물리친 후, 큰 부를 가지고 그의 왕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몇해 후, B.C.168 년, 안티오쿠스는 이집트를 다시 침략하나, 이 때에는 처참한 결과를 얻습니다. 당시 떠오르는 지중해의 세력인 로마 (깃담의 배들)이 이 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안티오쿠스는 어쩔 수 없이 굴욕적으로 철수해야 했습니다. 한편, 안티오쿠스의 이집트에서의 전쟁 중, 유대인들의 반란 시도로 이어진, 그의 암살에 관한 소문이 유다에 유포되었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중에,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을 기습하였고,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의 군대를 위한 요새를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는 할례와 같은 유대적 관습을 금지하였고 성전에서의 정기적</p>

Wars and Rumours of Wars 24/5/15
(Daniel 11:2-45)

<p>desecrated the Holy of Holies and dedicated the temple to the worship of Zeus (v. 31). Some of the Jewish people caved in under the pressure and collaborated with his forces, while others faithfully resisted him at great personal cost, falling by the sword or being burned (vv. 32-33).</p>	<p>제사를 없애버렸고, 대신 돼지의 살을 성단에 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그는 지성소를 훼손하였고, 제우스를 숭배하기 위해 성전을 헌당하였습니다 (31 절). 일부 유대인들은 그 압력에 굴복하였고, 그의 권력과 협력하였으나, 반면 다른 이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불에 타 죽어가는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으로 그에 대항하였습니다.</p>
<p>3. The Third Phase - One Greater Than Antiochus But there is worse yet to come. As we progress on with this vision in verses 36-45, towards the conclusion of the prophecy, there is the growing sense that even while the vision addresses the situation under Antiochus, it is not simply about him. Antiochus was powerful, able to “do as he pleased” (v. 36), up to a point, but throughout his reign the power of the Romans was far greater than his. Antiochus certainly viewed himself as a god - his nickname, “Epiphanes” means “god made visible or manifest” - but many ancient rulers considered themselves to be gods. Antiochus turned his back on the traditional gods of the kings of the North (“Apollo”) and of the kings of the South (“Adonis” or “Dionysius”). Rather he worshiped Zeus, who was the chief God of the Greeks, a god who embodied military strength. Even while aspects of the language of vv. 36-39 seem to fit Antiochus, the passage seems to be speaking of a king who will be a larger and more ultimate version of Antiochus. This coming ruler will truly “do as he pleases”, “attack the mightiest fortresses” and make his followers “rulers over many people”.</p>	<p>3. 세 번째 시기 - 안티오쿠스보다 위대한 자 그러나 더욱 심각한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언의 결론을 향해 가며, 36-45 절의 이상을 지켜보면, 이상이 안티오쿠스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 와중에도, 그에 대한 것이 아닌, 무언가가 점점 커지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강력하였고, 어느 정도는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었으나(36 절), 그의 통치 내내 로마의 힘은 그의 것보다 훨씬 강력하였습니다. 안티오쿠스는 분명히 스스로를 신이라 여겼습니다. - 그의 별칭 “에피파네스”는 “나타난 신(神)왕”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고대의 통치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신격화하였습니다. 안티오쿠스는 북방 왕들의 전통적인 신(아폴로)와 남방 왕들의 신(아도니스 또는 디오니시우스)에 등을 돌렸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리스 최고의 신이며 군사력의 상징인 제우스를 섬겼습니다. 36-39 절에서 표현의 양상이 안티오쿠스라 여겨지는 가운데, 이 구절은 안티오쿠스보다 더 크고 더욱 최악일 어떤 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이 통치자는 진정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며 그의 추종자에게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게도 할 것”입니다.</p>
<p>There is no clear shift in the language of Daniel 11 that marks the transition from Antiochus to the final king - perhaps that is because Antiochus forms a model with which to compare the ultimate ruler. One striking difference between them, though, lies in the events surrounding the king’s death in vv. 40-45 which do not fit what we know of Antiochus’ death. He was killed during a fairly minor campaign against Persia in 169 B.C., not between the sea (Mediterranean) and Jerusalem (“the beautiful holy mountain”) as is prophesied in v. 45. When compared to the great precision of fulfilment of the prophecies of the previous verses of Daniel 11, these final verses seem still to be looking for a greater fulfilment that is yet to come. Chapter 24 of Matthew’s Gospel similarly anticipates a dual fulfilment, referring both to the events of the fall of Jerusalem in A.D. 70 and also to events that will mark the end of the world. It seems that history will not come to a conclusion until the coming of another Antiochus-like king.</p>	<p>안티오쿠스에서 마지막 왕으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정확한 표현이 다니엘 11 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아마도 안티오쿠스가 최강의 통치자로 비교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일 것 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한가지 현저한 차이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안티오쿠스의 죽음과는 맞지 않는 40-45 절의 왕의 죽음에 있습니다. 그는 45 절에 예언된 바와 같이, 바다(지중해)와 예루살렘(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이에서가 아니라 B.C. 169년 페르시아와의 상당히 작은 전쟁 중 죽음을 당했습니다. 다니엘 11 장의 이전 구절들의 예언 성취의 엄청난 정확성과 비교해 볼 때, 이 마지막 구절들은 아직 오지 않은 위대한 성취를 기대하고 있는 듯 합니다. 마태복음 24 장 역시 이와 비슷하게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들과 세상의 종말에 나타나는 사건들 또한 관련 있다는 이중 예언의 성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안티오쿠스와 같은 다른 왕의 출현까지, 역사는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p>
<p>4. Believe, Resist, Teach and Pray What does this prophecy of the coming of the dark days of Antiochus IV and of another greater Antiochus yet to come have to say to Daniel and to us? The aim of this history is to put our lives into perspective. Is Daniel troubled by the real difficulties of his own day? The Lord responds by revealing that there are even more trying times to come. Are we troubled by the problems we face? Cheer up, they could easily be worse. Even today there are believers in many countries who are suffering</p>	<p>4. 믿고, 저항하며,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라 안티오쿠스 4 세의 불길한 시대의 도래에 대한 예언과 아직 오지 않은 안티오쿠스보다 더 강력할 다른 이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이 역사의 목적은 우리 삶에 대한 관점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당시 다니엘이 실제 어려움에 의해 곤경에 처했나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더욱 많은 힘든 시기를 드러내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p>

Wars and Rumours of Wars 24/5/15
(Daniel 11:2-45)

<p>harsh persecution, even faithfully laying down their lives for their Lord. If that is true, then what do we really have to complain about?</p>	<p>처한 문제들에 의해 고통받고 있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그것들은 더욱 어려운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혹한 핍박으로 고통받는, 심지어, 신실함으로 주를 위해 그들의 목숨을 다하는 많은 믿는 자들이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우리가 정말 불평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p>
<p>Yet Daniel 11 doesn't simply want to make us ashamed of our grumbling because other believers are faithfully enduring far worse trials than the ones we are so bitter about. It also wants to teach us how to live faithfully in the midst of trial and tribulations, and that includes the trials and sufferings you and I face as we seek to live in our society as disciples of Jesus. The lessons of Daniel 11 can be summed up in 4 imperatives that summarize the message of the chapter. They are - believe, resist, teach and pray. First, we are to <u>believe</u>. In Daniel 11, it is those who know their God who will be strong and take action: "...the people who know their God will firmly resist" (v. 32). Faith in God's sovereign power (as it is clearly displayed in Daniel 11) is the foundation and basis for all of our hope and all of our activity for God. History is not simply a long chain of random coincidences. Rather it is the account of the working of God's hand accomplishing his sovereign purposes in the lives of men and women in every age. Do you believe that? It is the foundation for everything else.</p>	<p>단지 다니엘 11 장은 다른 믿는 자들이 신실함으로 우리가 혹독하다고 여기는 것들보다 훨씬 더 힘든 시험을 견뎌내고 있기에, 그저 우리의 불평으로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또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신실함으로 살 것인지와 여러분과 제가 국면하고 있는 시험과 고난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 것인지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11 장의 교훈은 이 장의 메세지를 요약한 4 가지의 명령- 믿고, 저항하며, 가르치고 기도하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u>우리는 믿어야 합니다</u>. 다니엘 11 장에서, "이는 강하며 조치를 취하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며",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32 절). 하나님의 주권자 적인 힘에 거한 믿음은 (다니엘 11 장에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의 모든 희망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행동의 토대와 기초입니다. 역사란 단순히 우연히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들의 연속됨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매 시대 인간의 삶에 그의 주권적인 목적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의 사역에 대한 기술입니다. 여러분은 이를 믿으십니까? 이것이 나머지 모든 것의 토대입니다.</p>
<p>Second, we are called to <u>resist faithfully</u>, even to death. Sometimes obedience to God will mean a lifetime of faithfulness in a hostile, anti-God environment, as it did for Daniel himself. Sometimes it will mean martyrdom, death, for the faith, with no dramatic rescue at the last minute, as there was for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in the fiery furnace and for Daniel in the lions' den. Such an act of laying down your life for what you believe looks like the ultimate foolishness to the world. The Lord, however, calls it wisdom. How can such a horrific death be wise? It is wise because the persecutor's fire has no power to inflict real hurt on the believer. The fire of persecution is the means by which God's people are refined, purified, and made spotless for the time of the end (see v. 35). As Paul says in 1 Corinthians, if it is only for this life that we have hope, then we are of all people most to be pitied (1 Corinthians 15:19). If all of God's plans are being worked out in this world of time and space, in the here and now, then persecuted believers are being short-changed and are missing out on much that life has to offer. But if there is heaven to come, in which earthly deeds will be judged and faithfulness to God will be rewarded, then those who are faithful to God, even to death, have made the best choice of all. As Jim Elliot once said, not long before he was martyred by the Auca Indians of South America: "He is no fool who gives up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p>	<p>두번째로, 우리는, 심지어 죽기까지, <u>신실함으로 저항하기로</u>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께로의 순종은 적대적이며 하나님을 반대하는 환경에서의 신실한 삶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이는 불타는 화염속의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와 사자굴 속의 다니엘에게는 있었던 마지막 순간의 극적인 구출이 없는, 믿음에 대한 순교,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는 이러한 행동은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바보스러운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를 지혜롭다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죽음이 현명할 수 있습니까? 박해하는 자의 불은 믿는자들에게 진정한 상해를 가할 수 없기에 이는 지혜롭습니다. 박해의 불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고, 정결하게 되며, 회개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는 수단입니다(35 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고전 15:19). 만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 세상의 시공간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잘 이루어진다면, 박해받는 믿는자들은 냉대받고, 그 삶이 주는 많은 것들을 놓칠 것 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어 이 땅에서의 행위가 심판받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라면, 심지어 죽기까지로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은 모든 것 가운데 최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Jim Elliot은 남아메리카의 아우카 족에</p>

Wars and Rumours of Wars 24/5/15
(Daniel 11:2-45)

	<p>의해 순교하기 얼마전, “절대 잃어 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p>
<p>Third, we are called to <u>teach</u> those around us. Others need to know that history has a goal and purpose that has been set by God and we are called to instruct them: “Those who are wise will instruct many... (v. 33). This speaks to our witness day by day. We are constantly surrounded by people - in our families, workplaces, places of study, friendship groups and so on - whose thoughts are shaped entirely by present worldly realities rather than eternity. Many of our friends and neighbours go through life with no thought or the final resurrection and the day when they will stand before God to give an account for their lives. Who else is going to share that news with them? Who is in a better position to speak to them of the power and sovereignty of a holy God, the seriousness of the last judgement, and their need to live their lives in the light of eternity? How much of your conversation is “wise”, when measured in those terms and how much of it is trivial?</p>	<p>세번째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도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우리는 그들에게 알리도록 불리워졌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33 절). 이는 우리의 증거함에 매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직장, 학교, 교제 모임 등에서 영생보다는 세속적인 현실에 의해 전적으로 다듬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친구들과 이웃들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들의 삶에 대한 장부를 하나님께 드리하고자 그 앞에 서야 하는 그 날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과 이 복음에 대해 나누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힘과 주권에 대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그리고 영생의 빛 안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함이 필요함에 대해, 누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더 나은 입장에 있습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측정해볼 때, 얼마 만큼의 여러분의 대화가 지혜로우며, 과연 얼마 만큼이 하찮습니까?</p>
<p>Fourth, we are to <u>pray</u>. The victory in this conflict is not won by the wise among God’s people overcoming the evil one through their own strength. Rather, victory comes when the heavenly hosts, led by the archangel Michael, rise up to deliver the saints. In fact, Daniel 11 is bracketed at the end of chapter 10 and beginning of chapter 12 by mention of Michael and the heavenly conflict in which he is engaged. As we saw last week when we looked at chapter 10, our part in that conflict is to pray, just as Daniel did. In light of the ultimate victory of God and the resurrection of the saints, the wise will commit themselves to pray for that final victory to come soon.</p>	<p>네번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쟁에서의 승리는 그들 자신들의 힘으로 사악한 자를 이긴 하나님의 백성 중 현명한 자에 의해 이끌어온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는 천사장 미카엘을 앞장 세우고 천사군이 일어나 성도들을 데리고 갈 때 일것입니다. 사실, 다니엘 11 장은 10 장의 마지막과 미카엘과 그와 연계된 하늘의 환난을 언급한 12 장의 시작을 함께 묶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 10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분쟁에 대한 우리의 말은 바는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성도들의 부활에 비추어, 현명한 자는 곧 도래할 마지막 승리를 위한 기도에 스스로를 헌신할 것입니다.</p>
<p>God’s people will not endure forever because of their own faithfulness and suffering, however. It is not the blood of the martyrs that saves them. Those who enter heaven, whether as martyrs or as regular believers, do so only through the power of the blood of the Lamb, Jesus Christ (Revelation 7:14; 12:11). It is because Christ has suffered and died and has risen again that history has meaning and purpose. It is because Christ has shed his blood for you and for me that we can look forward to spending eternity with him. Our heavenly inheritance is all of grace, and that glorious hope, that sure future certainly makes any sacrifice God calls us to make in this life more than worthwhile. <u>Amen</u></p>	<p>그러나, 그들 스스로의 충실함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참아내야만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구원한 순교자의 피가 아닙니다. 순교자이든 일반 성도이든,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계 7:14, 12:11).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다 다시 살아나셨기에 역사는 의미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피흘리심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할 영생을 고대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천국의 유산은 은혜의 모든 것과 영광스러운 소망과, 우리를 더욱 가치 있는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u>아멘</u></p>